

# 心理學的 意思決定論의 研究

趙 錫 俊\*

## <目 次>

I. 序 論	1. Decision Theory(DT)
1. 研究動機	2. Behavioral Decision Theory(BDT)
2. 意思決定論의 分類	3. Psychological Decision Theory(PDT)
3. 連續線과 分類	4. Social Judgement Theory (SJT)
4. Hammond의 Prescriptive Dram- ework와 우리가 使用할 方法	5.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IIT)
II. 本 論	6. Attribution Theory(AT)
	III. 結 論

## I. 序 論

### 1. 研究動機

意思決定에 관한 理論들이 너무 여러갈래로 發達하고 있기 때문에 이 方面을 공부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보면 이들을 結合하여 體系的으로 把握할 必要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Kenneth R. Hammond, Gary H. McClelland와 Jerly Mumpower 등이 1980년에 *Huma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eories, Methods and Procedures* 라는 冊을 出刊하였다.<sup>(1)</sup>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1978년에 이들의 所屬校인 University of Colorado에서 25名の 有名 學者들이 모여서 意思決定에 관한 諸理論의 體系化를 試圖하는 會議를 하였다. 이 冊은 바로 이 會議를 契機로 하여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筆者가 알기에는 意思決定에 관한 諸理論들을 著書로서 體系化한 것으로 이것이 처음이다. 더우기 우리들 行政學者나 韓國學者들에게는 美國의 意思決定理論中에서 管理科學, 政策學系列의 것들과 政治學, 行政學의 學者들이 펼친 模型들만 소개되어 있고, 心理學者들이 이루어 놓은 成果는 別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 서울大 行政大學院 教授

(1) Kenneth R. Hammond, Gary H. McClelland and Jerly Mumpower, *Huma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eories, Methods, and Procedures*,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1980 이 冊은 바로 이와같은 綜合的 體系化를 企圖한 것이다.

筆者도 이 새로운 心理學分野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들이 政治學者·行政學者들의 것들보다 理論의 깊이가 더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筆者는 本論文中에서 自身の 공부도 할 겸, 또 내가 屬한 學界에 새로운 것을 紹介하기 위해서도 위의 著書를 깊이 研究하여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 論文은 단순한 書評은 아니다. 위의 著書를 評價하는 것이 아니고 冊속에 소개된 理論들은 筆者가 理解한 다음에 그 理論을 다시 要約해서 소개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런데 ○ 作業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冊은 心理學的 意思決定論의 방대한 分野를 벌써 대충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여간 難解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통의 意思決定論은 거의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心理學系統의 理論·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 린 자그만한 努力이라도 始作으로서의 意義가 있다고 생각하여 감히 執筆에 着手하였다.

## 2. 意思決定論의 分類

Hammond 등은 意思決定論을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 Decision Theory(略稱 DT)
- Behavioral Decision Theory(◇ BDT)
- Psychological Decision Theory(◇ PDT)
- Social Judgment Theory(◇ SJT)
-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IIT)
- Attribution Theory(◇ AT)

以上の 名案에 대하여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DT는 管理科學의 分野로서 이 分野의 最近의 代表作은 다음의 著書다.

R.L. Keeney and H. Raiffa, *Decisions with Multiple Objectives; Preferences and Value Tradeoffs*, New York; Wiley, 1976.

이 分野는 代案이 여러 屬性을 갖고 있을 때에 그중의 하나를 擇하는 問題를 취급하며, 確率論과 效用論이 主된 關心事이고 手段으로 數學을 主로 使用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認識合理性이 근거하게 되고 處方的인 것에 대해서만 關心이 있다. 우리가 過去에 規範的 理論이라 불렀던 分野가 여기에 屬한다. Decision Analysis도 이 分野에 屬한다.

다음으로 BDT 또는 Behavioral Decision Theory 라는 것은 心理學者들이 經濟學者들의 DT 理論에 대한 補完을 통하여 人間의 認識合理性의 制約을 克服하고자 하는 努力이라 할 수 있다. Ward Edwards의 一連의 努力을 代表的인 것으로 꼽는다.

특히 그의 1954年度の 다음의 論文이 重要하다.

Wurd Edwards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1954, 5(4) pp. 380~417.

이 分類는 人間의 最適化能力의 未到達狀態를 記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統計學, 數學 其他 論理의 구사를 통해서 補完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첨가해서 附言할 것은 Hammond의 分類에는 Herbert Simon, James March, Robert Cyert 等의 Carnegie School에 대한 言及은 없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原因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Decision Theory를 除外시킨 나머지 5個分類가 모두 心理學者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며, Hammond 等도 心理學者들로서 心理學者들間의 意思決定論을 整理하는데 目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arnegie School이나 政治學, 行政學系列의 意思決定論들은 全部 體系化作業에서 除外되었다.

그런데 筆者의 意見으로는 Carnegie School을 여기의 分類에 넣는다면 論理上 이 BDT에 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Psychological Decision Theory 또는 PDT는 Daniel Kahneman과 Amos Tversky 等이 主張하는 것으로 위의 BDT의 記述的 理論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說明과 豫測까지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主된 關心은 人間이 왜 認識合理性으로 부터 離脫하게 되는가의 根拠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具體적으로는 確率이나 效用의 判斷過程에서 誤謬를 생기게 하는 記憶, 認知, 其他 經驗等の 諸過程을 分析하게 된다.

넷째로 SJT 또는 Social Judgment Theory는 Egon Brunswik와 Kenneth Hammond 等の 理論으로서 主된 關心은 人間이 環境의 屬性 때문에 正確한 判斷을 하는데 困難을 겪게 되는 現象을 記述하고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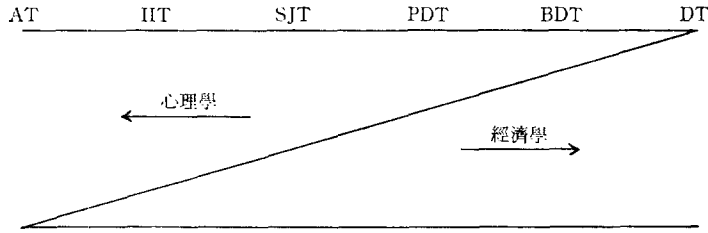
다섯째로 IIT 또는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는 Norman Anderson이 主張하는 것으로 人間이 여러가지의 情報를 認識的 側面에서 統合하는 方法을 分析하며 이 過程에 人間이 使用하는 平均化, 乘算方法 等 認識的 代數의 樣式을 究明하는데 目的이 있다.

마지막으로 AT 또는 Attribution Theory는 Fritz Heider가 主張하는 것으로 人間이 環境을 대할 때 그속에 여러개의 變數들이 相互連結된 상태로 있으면 自己의 判斷의 原因이 되는 變數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認識적으로 알아내는데 여러가지 難點이 있다는 데 主眼을 둔다. 그래서 어떤 條件 또는 狀況下에서 어떤 變數를 原因으로 보게 되는가를 研究하게 된다.

### 3. 連續線과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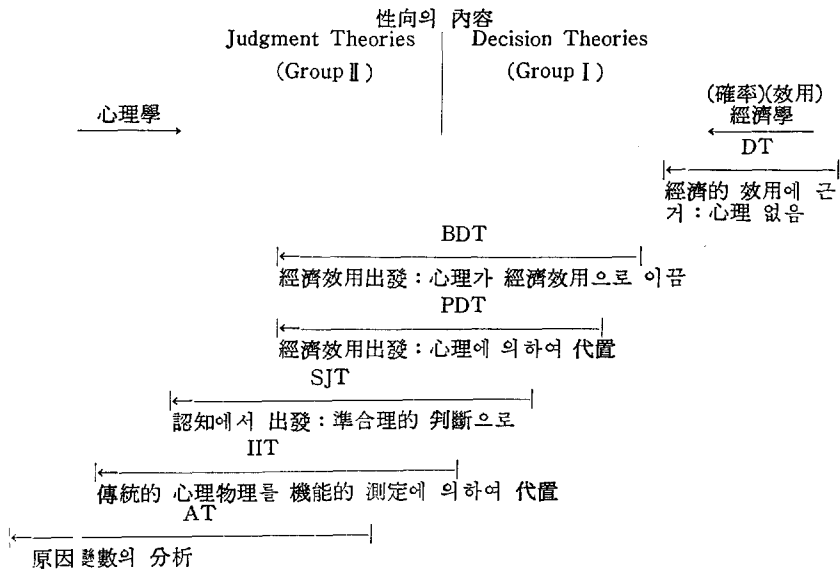
以上과 같이 6種으로 分類한 것에는 基準으로 使用된 다음과 같은 連續線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앞으로서 이들의 特性을 좀더 잘 알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어느 程度로 經濟學 쪽에 依存하는가 또는 心理學을 強調하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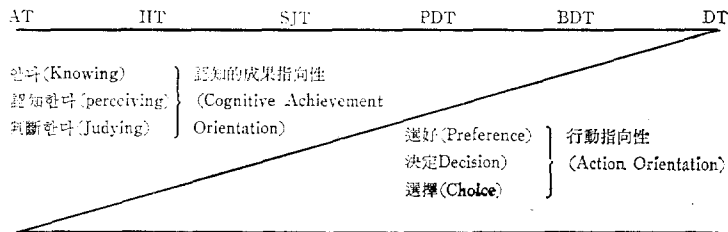
〈圖-1〉 6個接近法の 經濟學的·心理學的 性向

이제 DT, BDT, PDT 등을 Group I으로 묶고, SJT, IIT, AT 등을 Group II로 묶기로 하자, 前者는 주로 經濟學에 치우치고, 後者는 주로 心理學에 치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圖 1〉과 基本的으로 같은 內容을 다시 다른 角度에서 그려본 것이 다음의 〈圖 2〉이다.



〈圖-2〉 6個接近法の 經濟性向과 心理

이제 세 번째로 이들 6個接近法の 性向을 다른 角度에서 分析한 것이 다음의 〈圖 3〉이다.



〈圖-3〉 6個接近法の 性向의 差異

#### 4. Hammond의 Descriptive Framework와 우리가 사용할 방법

前述한 Hammond의 著書에 依하면 위의 6個接近法을 分析 紹介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Framework를 開發하여 사용하고 있다.

〈圖-4〉 6個接近法の 比較 Framework

		Categories					
		Origins	Scope	Intended Function	Principal Concept	Loci of Concepts	Intended Uses
Approaches	DT						
	BDT						
	PDT						
	SJT						
	IIT						
	AT						

Hammond는 이 Framework에 따라서 各 Category別로 章을 割當하고, 그속에서 6個接近法을 서로 比較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各接近法別로 모든 Category의 概念을 檢討하는 方法을 使用하고자 한다. 이 方法이 每接近法을 더 깊이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먼저 各 Category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한다.

첫째로 Origin이라는 것은 經濟學이나 心理學이나와 같은 것이 그 例에 속한다. 즉 한 接近法이 어떤 學問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經濟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合理的人間을 対象하고 各代案의 價値를 效用面에서 보고, 그것의 發生確率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心理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Beliefs, Expectancies or Preferences에 重點을 둔다는 것을 말한다. 數學은 이 兩者를 다 함께 支配하는 思考方式으로 使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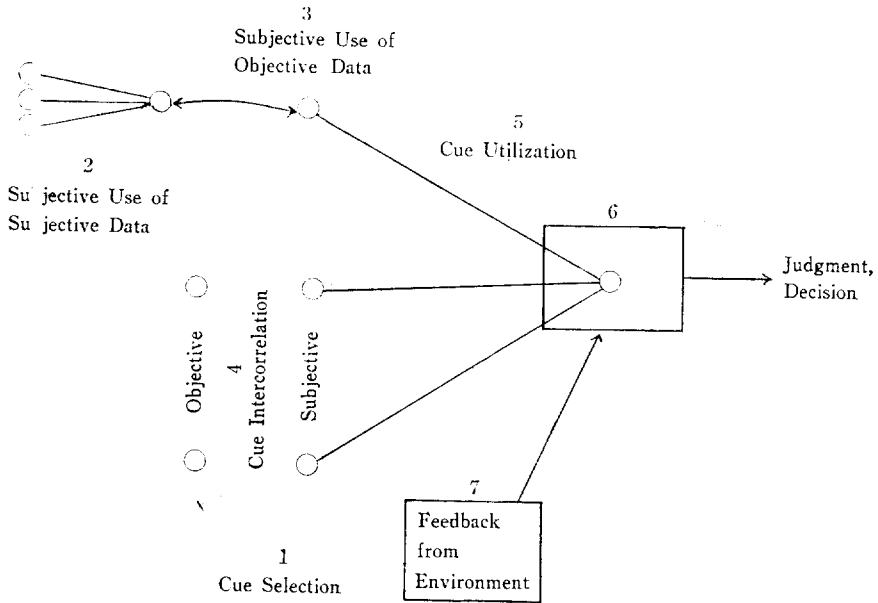
Scope라는 것은 Single-system case, double-system case, triple-system case, n-system case의 어느 것을 對象으로 하는가의 문제다. Single-system Case라는 것은 한사람이 task의 屬性에 관한 完全한 情報가 없이 決定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Task 內容에 비추어본 正確性에 대한 自信은 없다. double-system case라는 것은 한사람이 決定하지만 task의 屬性을 完全히 알고 있는 경우로서 따라서 判斷의 正確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다. triple-system case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task system에 대한 判斷을 하는 경우로서 人間相互間의 習得이나 葛藤等이 여기에 속한다. n-system case는 集團意思決定을 말한다.

Intended function이라는 것은 例를 들면 處方(Prescribe), 記述(Describe), 說明(Explain),

豫測(Predict)의 어떤 目的을 갖고 있는가를 말한다.

Principa Concept라는 것은 文字 그대로 이들이 使用하는 概念들을 말한다. 事實은 意思決定論의 各理論家들이 使用하는 用語들의 多様性은 때로는 같은 用語가 다른 概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꾸로 같은 概念을 다른 用語로 表現하는 경우도 많다.

Loci of Concepts라는 것은 앞에서 본 Principal Concepts가 以下에 소개할 Bruswik의 lens mode 의 어디에 속하는가를 의미한다. (2)



Data Entry Data Utilization Data Organization

<圖-5> Bruswik Lens Model의 要約型

물론 이 Model을 使用한 것은 Hammond의 主張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Intended Uses라는 것은 學界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政策等を 다루는 高位 實務家等에게도 使用할 수 있는가의 問題를 말한다.

(2) E. Bruswik, *Wahrnehmung und gegenstandswelt; grundlegung einer psychologie vom gegenstand her*, Leipzig und Wien, Deuticke, 1934;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sycholog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Vol.1, No.1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2; "Representative Design and Probabilistic Theory in a functional psychology," *Psychological Reviews*, 1955, 62(3), pp.193~217; *Perception and the representative design of psychological experiments*. (2nd e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56; "Scope and Aspects of the Cognitive Problem," in H. Gruber, K.R. Hammond and R. Jessor, 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ognition; A Symposium held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7.

## II. 本 論

### 1. Decision Theory(DT)

이 理論은 이미 言及한대로 經濟學에 根源을 두고 있다. 그리고 Morgenstern과 von Neumann의 Game Theory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高度의 數學을 使用하는 것을 좋아한다.

Scope는 Single-system case만을 다룬다. 따라서 한 決定者가 自己의 合理性을 最高로 發揮하도록 도와주려는 理論이다. 그 結果 이들은 對象狀況에 대한 完全한 情報도 없으며, 또 決定의 結果에 대한 feedback이 다음의 decision에 어떻게 反映되어야 하는가의 理論도 없다. 또 도와주려는 理論家와 決定者間의 交互作用의 效果에 관한 理論도 없다. 集團決定은 이를 個人決定으로 환원하여 다루는 수 밖에 없다.

이 理論의 intended function은 處方에 두고 있고, 따라서 決定者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處方の 效用에 대해서는 이 理論의 基本前提 때문에 反對가 많다.

主된 概念들은 decision, choice, preference, probability, utility, aggregation 등이다. 이 가운데 probability와 utility는 다시 意思決定者의 judgment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兩概念을 가장 重要視한다. 其他 objectives, trade-offs, scaling, transitivity 등도 重要概念으로 使用한다.

前記한 Lens Model 속에서 이 理論은 Central Process에 置重한다. 즉 위의 概念들은 이 Process를 說明하는데 使用하고 있다. 특히 1번부터 5번까지의 先行過程에 대해서는 전혀 關心이 없다. 따라서 心理學的 側面에 대한 考慮가 전혀 없으며, 어디까지나 論理的 구사에 의하여 結論에 到達하려고 하지 經驗的인 研究나 實驗같은 것은 關心밖이다.

마지막으로 이 理論은 實世界의 意思決定者를 돕는 用途에 使用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 目的을 위해서 decision analyst가 確率이나 效用을 判斷할때 實際意思決定者의 것을 떠나서 自己의 主見에 依하여 支配되지 않도록 努力하고 있다.

### 2. Behavioral Decision Theory(BDT)

이 理論의 根源은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Behavioral Decision Theory라는 用語를 만들어낸 Ward Edwards에게 있다.<sup>(3)</sup>

Edwards는 心理學者 가운데 가장 먼저 意思決定論을 다룬 사람이며, 經濟學의 意思決定論, 게임 理論, 臨床心理學, 心理物理學, 確率論과 統計, 心理計量學 등의 廣範圍한 領域에

(3) 그러나 古典的 論文에 대해서는 以下를 參照할 것. W. Edwards,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1954, 51(4), pp. 380~364 그리고 同人의 "Behavioral Decision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61, 12, pp. 473~498.

걸쳐서 살펴보았으며 후에는 Bayesian 統計學에 대한 興味를 갖고 그를 活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理論은 Single-system case 뿐만 아니라 double-system case 까지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DT와 달리 實驗을 많이 한다. 특히 主觀的 確率의 修正過程에 情報이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Bayesian의 統計理論에 맞는가를 檢討한다. 主觀的 確率과 客觀的 確率의 比數와 差異에 대한 說明까지도 하고저 한다.

그러니까 이 理論은 intended function에 있어서도 人間의 決定이 最適으로 부터 離脫하는 것을 記述하려고 하고, 나아가 그것을 說明까지 하려고 한다. 즉 客觀的인 選擇理論으로부터 연역된 것이 經驗적으로 어디까지 眞實인가를 發見하고저 한다. 이런 過程을 거쳐서 既存의 決定 또는 選擇行動論을 再構成하여 정말로 現實에 맞는 理論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完成되면 그때는 決定分析家들이 決定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有力한 處方手段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重要概念에 있어서는 DT의 경우와 비슷한 것들이 매우 많다. 數學的 論理의 使用, 決定 選擇, 主觀的 確率, 效用, 統合 등이 그런 것들의 例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準心理學의 概念인 期待이 報償(pay-offs)과 feedback이라는 不位概念을 통하여 使用되고 있다.

Bruswick의 lens model上的 位置로 말하면 DT처럼 6번인 Central Proces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번의 모두를 다루고 있다. 물론 이 모든 過程의 最終的인 表現은 確率判斷이라는 反應을 규명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 理論의 用途는 첫째로 心理學分野에서 意思決定行動에 대한 記述과 說明을 하는 分野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決定者가 더 論理的인 決定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方法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 둘째의 用途는 DT의 경우와 같으므로 BDT의 特色은 첫째에 있다고 봐야 한다.

### 3. Psychological Decision Theory (PDT)

PDT는 前述한 BDT의 發展을 繼承하여 생긴 理論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旺盛한 研究는 1970年代 以後의 일이다.<sup>(4)</sup>

이들이 BDT와 다른 것은 客觀的인 것과 主觀的인 것의 差異의 說明보다도 決定者가 頻度와 可能性을 評價할 때 使用하는 心理的(認識的) 裝置를 찾아내는 것을 더 重視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不確實性의 問題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은 그 以前에 BDT의 主觀的인 것과 客觀的인 것의 差異에 관한 研究結果가 充分하게 蓄積되어 있었기 때문에 可能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4) 以下를 参照할 것. A. Tversky and D. Kahneman, "Belief in the Law of Small numbers," *Psychological Bulletin*, 1971, 76(2), pp. 105~110; 同人들의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1973, 5, pp. 207~232.



이 이론은 DT의 경우처럼 single-system case를 다루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즉課題 또는 task system에 관한考慮를 적게 한다.

이 이론의 intended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DT가 사용하는 基本的인 假定, 論理와 人間的 決定行動間의 差異를 記述하고, 그 理由를 說明하려고 한다. 즉 사람은 DT나 BDT에서 主張하는 것처럼 主觀的 期待效用의 命題에 맞게 決定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는가까지를 나타내하고자 한다.

BDT가 決定理論의 方向을 單純한 客觀的인 期待效用의 論理的 理論으로 부터 主觀的 期待效用의 行動理論 쪽으로 바꾸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면, PDT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한 行動理論으로부터 떠나서 왜 사람을 그렇게 行動하는가를 可用性(availability), 代表性(representativeness) 등의 心理學的 概念을 써서 心理學的 方向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決定者에게 도움을 주는 面을 보아도 다같이 「偏見의 除去」(debiasing)를 다루는데 이것은 DT나 BDT는 情報를 統合(aggregate)하는 過程을 重視하는데 대하여 PDT는 情報의 投入自體에서 생기는 偏見의 除去를 다룬다.

DT나 BDT처럼 決定, 選擇, 選好, 主觀的 確率, 效用 등의 概念을 이들로 使用하지만, 또 自己들 나름의 availability, representativeness, anchoring, causal schema 등의 心理學的 概念들을 使用한다.

이런 概念들이 前述한 Lens Model 上에 차지하는 位置들을 보면 1, 2, 3, 5, 6 등이 對象이 된다. 그러나 central process (6)에서도 data의 統合方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또 7번의 feedback도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의 用途에 있어서 偏見除去를 통하여 實務家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明白한데, 아직도 이런 debiasing technique이 成功했다는 事例報告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 4. Social Judgment Theory (SJT)

SJT는 Brunswik의 認知理論에 根源을 두고 있다. 이 認知理論은 一名 確率的 機能主義 (Probabilistic functionalism)라고도 불리며, 주로 어떤 對象이 實驗室밖에서의 여러가지 環境條件의 差異에 따라서 認知될 때의 正確성을 重視한다. 그러니까 認知的 正確性上的 成就와 適應을 다루는 것이다.

Brunswik의 死後에 Hammond가 이 系列을 계승했고, 그가 Social Judgment Theory라는 명칭을 부여했다.<sup>(5)</sup>

이들이 말하는 確率과 上述한 經濟學指向性이 높은 理論들에서 말하는 確率의 差異는 다

(5) M. F. Kaplan and S. Schwartz, eds., *Human Judgment and Decision Processe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음과 같은데 있다. 後者들은 決定者가 어떤 事件이나 狀況의 發生確率을 알아내는 明白한 節次를 提示하는 것이 研究對象인데 대하여 前者는 決定者가 判斷하는 行動(結果)의 確率性을 觀察하는데 그친다. 例를 들면 後者는 여러가지의 福券 사이에 어떤것이 確率이 더 높은가를 決定者가 判斷하는 節次를 對象으로 하는데 대하여 前者는 決定者가 행한 確率判斷의 正確性이 어떠한가를 觀察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習得의 理論이 援用된다.

SJT의 理論들은 Single-system, double-system, n-system case의 全部를 다룬다. inter personal learning, interpersonal conflict group decision 等까지도 다루고 있다.

이 理論은 說明보다도 記述쪽에 置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記述이 政策決定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選擇 그 自體를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主觀的 確率, 效用, 選擇, 選好 等の 概念들이 使用되지 않는다.

그러나 不確實性的 概念은 重要概念으로 다룬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不確實性이라는 것은 不確實한 環境 때문에 생기는 確率의 意味의 不確實한 判斷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成就(Achievement)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위하여 We, 刺戟, 基準, 抽定等の 概念이 使用된다.

以上の 概念들은 Lens Model의 일곱가지의 모든 領域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다. 이 理論은 決定者에게 自己와 we와의 關係에 관한 情報과 다른 사람들의 業務에 대한 判斷에 관한 情報等を 提供하고자 한다. 認識的 側面的 feedback을 통하여 歸納的 習得을 시킴으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5.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IIT)

이것은 心理學中에서 心理物理學에 根源을 두고 있다. 心理物理學(Psychophysics)이란 物理的·社會的 刺戟에 對應하는 主觀的 刺戟의 測定에 관한 理論이다. 그러니까 이 測定技法을 主武器로 사용하는 것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이 理論은 원래는 single-system case에 適用할 目的으로 탄생하였는데 그뒤에 double-system case 즉 習得과 n-system case 즉 集團判斷에도 適用되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 人間相互間的 習得과 葛藤의 문제에도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理論은 說明과 記述의 兩쪽에 다 關心이 있다. 우선 說明쪽을 보면 그것은 文章에 의한 것보다 代數的 表現을 통한 法則의 提示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人間이 情報를 統合하는 것은 加算인가, 平均化인가 勝算인가 等を 따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記述이라는 것은 人間의 情報判斷行爲(刺戟에 대한 反應)는 以上과 같은 法則의 支配를 받는다는 事實들을 記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Model이 가장 잘 맞는가를 찾으려는 努力을 한다고 할 수 있다.

(6) (N. Anderson, "Cognitive Algebra; Integration Theory Applied to Social Attribution," in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7),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IIT의 理論에서는 主觀的 確率, 效用, 不確實性 등의 概念이 使用되지 않으며, 心理學的 概念들인 刺戟, 反應, 情報, 統合, 價値부여, 比重 等과 割引, 政策 等의 概念을 使用하며 이들을 計量的 代數法則의 發見을 위하여 使用한다.

그리고 이 理論은 主로 single-system case에 限定시켜왔고, 前記한 Lens Model의 2, 4, 5, 6 等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實世界에의 適用問題에 관해서는 等限히 하고 있다.

## 6. Attribution Theory(AT)

AT의 起源은 Fritz Heider에 있다. 그는 naive psychology 또는 common-sense psychology라는 것을 통하여 實驗室 밖의 不明한 環境 속에 숨겨져 있는 要因들에 대한 人間의 知的 判斷, 推理戰略을 記述하였다.<sup>(7)</sup>

그 뒤 Jones와 Kelley 等은 이것을 더욱 發展시켜 오늘날 Attribution Theory를 만들어냈다.<sup>(8)</sup>

그리고 6個理論 가운데서는 計量的인 方法을 가장 적게 쓰며, 또 가장 많이 心理學的인 接近을 하는 理論이라 할 수 있다.

이 理論의 範圍를 보면 거의 無限定이라 할 수 있다. Single-system, double system, n-system 을 全部 카버하고, 또 人間間的 相互習得과 葛藤의 問題도 다룰려고 한다.

이 理論이 目的하는 바는 人間들이 自己들의 習慣속에서 對象物이나 事件들을 記述하고 說明하려는데 있다. 이 系統의 理論을 Common-sense의 心理學이라 부르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이런 意味에서 이 理論의 機能은 記述과 說明의 兩者라 할 수 있다.

Attritition라는 말이 使用된 것은 다음과 같은 意味때문이다. 즉 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行動의 理由를 說明할때에 그 사람의 어떤 內的인 要因 또는 外的인 要因에서 이를 찾게 되는가. 즉 行動의 原因을 外的, 內的 要因에 歸屬시키는가를 說明하고자 하는데 努力하기 때문이다.

가장 重要한 概念은 물론 Attribution이다. 確率의 概念은 별로 重視되지 않는다. 代身 效用的 概念은 많이 使用되는데 이것도 Valence 또는 Value라는 用語로 表現되고 있다.

이 理論은 Single-system case을 다루고 Lens Model의 일곱가지 領域全部를 카버하고 있다.

이 理論의 實世界에서의 使用에 대해서는 實例는 아직 없지만 적어도 意圖面에서는 實際 適用을 가라고 있는것만은 틀림 없다. 實驗室속이 아니라 外部의 實世界의 現象에 근거하여 만든 理論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實際適用의 妥當性이 높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7) F Heider, "On perception, event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Psychological Issues*, 1959, 3, pp.1~23.

(8) (1) E. Jones and K.E. Davis, "From Acts to Dispositi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 New York, Academic Press, 1965, H.H. Kelley,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s*, *American Psychologist*, 1973, 28(2), pp.107~128.

一般化할 수 있을 때까지에는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 Ⅲ. 結 論

以上에서 우리는 6個의 接近法을 要約하여 紹介하였다. 이 가운데 Decision Theory 만 除外하면 全部 心理學쪽에서 援用하고 있다. 다만 그 程度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다섯가지의 理論들 사이에 어떻게 統合理論 또는 相互補完的인 理論을 만들 수 있겠는가 는 것이 Hammond 等の 心理學者들이 가진 苦惱이다.

우리가 여기에다 既往에 알고 있는 Carnegie School의 理論이나 Muddling Through, Garbage Can, Allison Model, Decision by Objection Model 등을 全部 合해서 理論 體系의 Grand System을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이것은 더욱 요원한 後日의 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이런 系統의 理論들의 全般的인 狀況에 관한 紹介의 글은 筆者가 다시 쓰기로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統合體系의 構想은 當分間 期待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배우는 사람의 立場에서 보면 여러 系列의 理論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비록 百貨店式이라 할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冊의 出現만이라도 實現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